

□ 총평

우선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설하는 저도 헉헉~ 하면서 당황하는 지문들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셨을 여러분들은 더 멘탈이 흔들리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난이도는 중상 ~ 상으로 볼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22년 2차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고, 23년 1차 시험이 쉽게 출제되어 난이도가 극단적인 시험이었기에 이번 시험도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시험이 될 것으로 수업 중에도 누차 이야기 하였습니다.

경찰학 기준으로 합격점수는 대략 경찰학에서 75 ~ 77.5점을 맞고 다른 과목을 잘 보았으면 합격이 가능할 듯합니다. 80점 이상 맞으셨으면 잘 하신 것으로 합격 안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시험의 특징은 예전 기출문제처럼 많이 반복하면 답이 바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고, 생각을 많이 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시험의 특징이었던 박스형 문제는 1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또한 갯수형 문제가 아니라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사례형 문제형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출제방향이기는 하지만, 수험생들은 익숙하지 않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 이론문제는 기존 기본서나 기출지문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소 생소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방향으로 출제한다는 것입니다.(4번 문제의 ①번 지문과 5번 문제의 ①번 지문이 그렇습니다.)

또한 단순한 두문자를 이용한 암기보다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생소한 문제들은 지문 속에서 답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12번 문제에서 대부분 두문자 암기로 공부했던부분이지만, 내용을 물어보아 당황했을 것입니다.)

▶ 법령문제는 다소 지엽적인 지문들도 보이고, 흔히 불의타라고 할 수 있는 채용시험보다는 승진시험에서나 나올 법한 낯선 법령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특히 40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한 기존의 함정을 파던 부분 대신에 다른 부분을 틀리게 출제함으로써 앞으로는 더욱 법조문을 꼼꼼하게 보아야 하겠습니다.(23번 문제의 3번 지문이 그렇습니다.)

▶ 최근 출제경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판례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7월 29일에 시행된 73기 경찰간부시험에서도 특히 경찰작용법 파트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직법은 대부분 조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최근에는 판례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 심상치 않아서 수업 때 해설을 하면서 판례 문제에 신경을 쓸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번 채용시험에서도 역시 판례문제가 대폭 출제되었습니다.

▶ 경찰간부시험에 나왔던 주제인 인권보호규칙(8번 문제)이나 경직법 출제경향 등을 살펴볼 때 이번 채용시험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행정법 파트에는 크게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작용법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경찰조직법 문제가 2문제, 경찰공무원법 1문제, 나머지는 경찰작용법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되어 조금 출제비율에 있어 분배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도 출제할 부분이 많은데, 경찰작용법에만 편중되기 보다는 골고루 출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출제경향분석

먼저 총론: 33문제, 각론: 7문제로 총론과 각론의 비율도 기준에 맞게 출제되었고, 각 단원별 로도 출제비율에 맞게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경찰론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총론>

경찰학의 기초이론(범죄학 및 지역사회경찰포함) [12문제 내외]	한국경찰사	비교경찰론	경찰행정법 [14문제 내외]	경찰행정학 [6문제 내외]	합계
11	1	X	15	6	33

<각론>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경비경찰	교통경찰	정보경찰	안보경찰	외사경찰	합계
2	1	1	1	1	X	1	7

<단원별 출제비율> 이론: 13문제, 법령: 20문제, 판례: 7문제

단원	출제 문항수	구분
경찰의 개념	1	이론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위험)	1	
경찰윤리 - 냉소주의, 부정부패,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 경찰활동의 기준	3	
경찰행정학(조직관리) -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1	
경찰행정학(인사관리) - 동기부여이론	1	
경찰행정학(예산관리) - 예산제도	1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 전략	1	
문제지향 경찰활동(이른바SARA 모델)	1	
한국경찰의 역사(연혁)	1	
경찰작용법 -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법령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1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1	
「행정기본법」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	
경찰조직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	
경찰조직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	1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의 징계	1	
경찰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개인정보 보호법」	1	
경찰행정학(장비관리) -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	1	
경찰행정학(보안관리) - 「보안업무규정」	1	
경찰통제 - 「경찰 감찰 규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행정상 법률관계	1	판례
경찰작용법 - 부관	1	
경찰작용법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경찰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판례	1	
경찰구제법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2	
총론 합계	33	

생활안전경찰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법령
수사경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교통경찰 - 「도로교통법」	1	
경비경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	
정보경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외사경찰 -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1	
각론 합계	7	

□ 앞으로의 수험대책

경찰학은 물론 암기할 부분이 많은 과목입니다. 암기를 하지 않고서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볼 때 경찰학을 더 이상 암기위주로 출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즉, 단순하게 답이 빨리 보이는 문제보다는 생각을 하여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경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할 것은 하고, 최대한 이해를 통해 암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두문자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 암기사항에서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공부하기 위해 두문자부터 따게 되면 생각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때도 두문자를 많이 활용하기 보다는 최대한 이해하는 방향으로 암기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1. 이론파트는 철저하게 이해하여 암기량을 줄이고, 내용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론은 이해하는 공부를 하시면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최근의 이론문제는 예전처럼 기출지문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소한 표현이라도 비슷한 뜻을 찾아내고, 그 지문을 통해 뜻을 유추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2. 법령파트는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오히려 암기의 비중이 더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법조문 그 자체의 함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형으로 법조문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 지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조문 하나하나를 더욱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출된 부분 이외에 지엽적인 조문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핵심부분을 먼저 확실히 공부하시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3. 판례는 기존의 각론의 도로교통법, 집시법 등에 한정되어 출제되었지만, 최근에는 경직법과 경찰행정법 파트에서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많은 판례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읽으며 많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이번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절대 공부량을 늘리시면 안됩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기본서 +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면 모의고사를 통해 약점을 체크하고,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생소한 지문이 나오고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었다고 모든 책들을 살펴보고, 공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경찰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에 그건 시간 상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정답을 고르면 합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본인이 선택한 훌륭한 여러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과 강의를 믿고 그것만이라도 완벽히 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이면 합격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기출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출 무용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출은 우리 시험에서 이정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출이 중요한 것은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출제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경찰학은 표면적으로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기출은 핵심적 내용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틀려서는 안되는 부분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시는 행정법 파트의 범위와 기타 사항들은 출간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 단권화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만 충실하게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업을 통해 만나 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3년 2차 경찰채용시험 총평과 수험대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